

지방 미분양 매입 확 늘려야

1차 신청 1조2천억 달해 ... 지원액 5천억으로 턱없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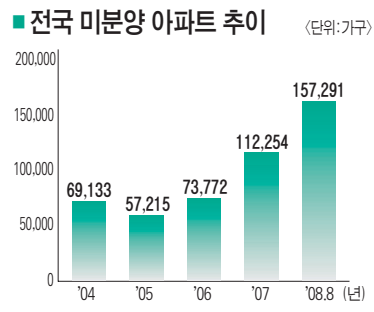
정부가 지방 미분양아파트 및 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사들이는 등 본격적인 건설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1차 미분양주택 매입액의 2.5배가 넘는 신청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건설사가 총 8천327가구(사업장 62개)의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이번 매입 신청에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내 대형 업체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은 이들 매입 신청 주택에 대해 '분양가 할인율, 공정률, 분양률' 등 3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행사 및 시공사별 매입신청금액은 500억원 이내다. 하지만 광주·전남 건설업계는 이



번 미분양 매입이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은 터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지방에만 공식 미분양이 13만5천가구가 쌓여있는 점에서 정부의 올해 매입 목표 5천억원은 전체 미분양의 2.5% 가량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미분양 매입에 신청서를 낸 건설업체의 미분양 분양대금은 전국적으로 총 1조2천593억원에 달한다. 이는 1차 매입 규모의 2.5배를 웃도

는 것으로, 신청 업체 5곳 중 3곳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번 신청에는 매입가를 낮게 써달수록 유리하다는 조건으로 인해 고심 끝에 신청을 포기한 곳이 많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분양가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매입이 이뤄질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대거 해약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식 미분양이 16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5천억원대 매입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단계별로 계획중인 2조원대 매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공사는 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열티 없는 국산 선인장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의 로열티 걱정없는 우리 품종 우리기술'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국산 선인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은 이날 26개 작목 85개 품종과 인삼수경재배기술,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우리 농업기술을 전시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의 '로열티 걱정없는 우리 품종 우리기술'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국산 선인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은 이날 26개 작목 85개 품종과 인삼수경재배기술,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우리 농업기술을 전시했다. /연합뉴스

“中企 총액 한도대출 확대를”

지역 금융권, 韓銀에 지원 대책 촉구

광주·전남지역 금융권과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들이 한국은행에 총액 한도대출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금융 및 기업 관계자들은 6일 한은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최근 지역 중기의 자금경색 등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유망 중기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원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역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날 한은 광주전남본부에 총액한도대출의 증액 및 지원 부문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재 광주·전남은 올해 배정된 총

액한도대출금(3천581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1천899억에 3천223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라는 점에서 한도액 증액 등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요구돼 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기 지원 실적에 연계해 저리로 자금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박현덕 한은 광주전남본부장은 "한은은 이달부터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를 4조원으로 높이는 등 중기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며 "본부 차원에서 지역 중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 경영안정자금 1조6천억 증액

중기청, 내년 예산 반영

중소기업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청 소관 예산을 1조6천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원부자재 가격급등, 구조조정, 재해피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금을 2천억원 증

액했으며,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하는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이 1천억원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향상과 기술사업화 자금이 새롭게 4천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창업 관련 예산도 655억원 추가 반영됐다. /연합뉴스

신협 광주전남본부

공제사업 부문 1위

신협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희웅)가 전국 공제사업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6일 신협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본부별로 지난 10월 말 기준 공제사업 실적을 평가한 결

과 광주전남본부 소속 98개 신협 실적이 15억8천6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실적은 당초 목표액(13억4천600만원)을 17.8% 초과달성한 것으로,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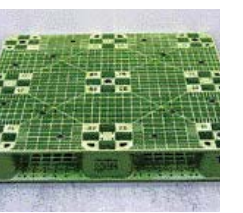
또 광주전남본부 소속 목표신협은 목표액(3천700만원)의 4배에 육박하는 1억2천700만원으로 341.8%라는 기록적인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주렌탈, 파렛트 임대시장 초고속 성장

종합렌탈업체인 아주렌탈(대표 반재운)이 파렛트 임대시장 진출 1년여만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파렛트는 지게차 등에 쓰이는 화물 운반용 적재판으로,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렌탈은 지난 2007년 파렛트 임대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해 100만매를 공급할 만큼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주렌탈은 오는 2012년까지 파렛트 공급물



량을 500만 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주

렌탈은 또 파렛트 시장 진출 이후 업체간 경쟁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업계의 물류시스템 형성 및 생산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37th Anniversary

창사사는 대축제

7(금), 8(토), 9(일) 3일 남았습니다

BIG BRAND 베스트 상품전

영수증 행운대축제
구매영수증 속 다양한 상품권의 행운을 잡으세요!

모든 구매고객께 창사사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현대백화점 HYUNDAI

3일 남았습니다! 카드+상품권+현금 합산 가능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중정기간 : 2008. 10/31(금)~11/9(일), 10일간 중정장소 : 8층 사은품 중정 데스크

2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원	4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2만원
6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3만원	10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5만원

영수증 구매 영수증에 영한 가능. 관련 규정 불가. 다른 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공휴일, 여행사, 임대차계약금(임대보증금) 등 유류권 및 일부 예외는 중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수증 중정유형과 다릅니다. *단, 소액(1만원)이상은 100% 반영

수능 고득점기원 특별기원

2층 영캐주얼/6층 영라이브 1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보온병」을 드립니다

일정 : 11/7(금)~11/9(일), 5일간 장소 : 2층/6층 해당 단열보온병 가판대 *영수증 중정유형과 다릅니다.

창사축하 식동관 5만원이상 구매고객께 「패션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중정기간 : 11/5(수)~11/9(일), 5일간 중정장소 : 지하 1층 안내데스크 *이외 다른 중정 제외됩니다. *이 사은품과 중복중정 하지 않습니다.

11/7(금)~11/9(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11/10(월) 정기휴점 합니다.